

## 다니엘 38 강

다니엘서 10 장 7 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리므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 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아직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이십일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의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네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병어리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 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람의 모습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가 힘을 돋우며 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네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녕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우어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 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시간 되는 데까지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70 주에 대해서 490 년 동안 그것이 바로 정해진

때다. 이런 환상 가운데서 7 주와 62 주 후에 69 주가 지나면 다시 말해서 483 년이 지나면 메시, 곧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기름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죠. 크라이스트라는게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온 땅의 메시아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예슈아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죠? 거의 환란 끝 무렵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근심에 쌓여 있는거죠. 이거 70 년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또 70 년의 일곱번이 남았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주님도 하셨지만 참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이번에 앞으로 죽으실 메시아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로하려고. 미래에 죽었다가 살아나실 주님이 미리 영광의 주님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난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하기 이전에 나타나셨다 알 수 있죠. 650 년 후에 나타날 초림할 예수님이 벌써 영광받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걸 참 우리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는거죠?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현재처럼 될 수 있는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매일같이 그날 그날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안하고 지난 날도 생각안해요. 지난날은 다 지나갔는데요.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사도바울이 뒤엎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것에 손을 뻗어서 부름의 상을 쫓아 간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옛날 것 생각 안합니다. 옛날 것에 메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항상 현재예요. 앞으로 올 것도 현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도 현재이기 때문에 항상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재림을 이미 환상 속에서 봤습니다. 이 사도요한과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 시점은 달랐지만 그러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았던 거죠.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바울도 다마스커스로 이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는 길목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일어나서 성읍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행하여야 될 일을 알려주리라. 그런데 바울과 일행은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을 못봤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음성을 들었을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을 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조그만 사도들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사도들은 있지만 옛날 사도하고 같다고 하면 안되요. 문제는 옛날 사도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치잖습니까 요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니엘이 홀로 남아서 큰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남아있는 힘이 없어졌고 내 아름다움이 내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다. 그리고 내게 힘이 없어졌다. 8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좀 보여 주세요. 그러면서 몇시간이고 나도 좀 보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환상이 들어 있습니다. 뭘 보여 달라고 그래요. 말씀은 뒷전에 놓고. 뭘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마귀를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는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광명의 천사라 그랬죠? 다시말해서 마귀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세상에다요 짝퉁이 진짜보다 더 멋지게 보입니다. 가짜 다이아몬드가 진짜보다 더 빛이나 보입니다. 가짜가 더 빛이난다. 마귀는 가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가짜예요. 그래서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분명히 사도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상을 보게되면, 옛날 1992 년 10 월 28 일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다 뭘 보여 달라고 했다가 똑같은 것을 봤죠? 당연하죠? 똑같은 마귀가 보여 주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다 믿게 된거예요. 공중에 199 년 10 월 28 일이라고 나오니까 다 믿은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안에서 환상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안합니다. 기도가 아니예요. 진짜 기도할 때 간구가 나가는 거예요. 기도없는 간구는 없어요. 그다음에 중보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로 하되. 그렇죠. 영적 체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해요. 아 나는 영적체험을 많이 했어요. 간증들도 많이 해요. 본 것을 증거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이 주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분간하려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로 알지니, 바리새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랬죠?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강대상에서 율법을 전하고 설교를 잘해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밀을 잘하고 증거를 잘해도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제목만 치면 싸악 나오는데 거기서 뽑아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죠? 그건 설교가 아니죠? 이걸 뭐라 그러죠? 표절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표절하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영적인 체험을 말할 때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깨끗한

삶을 사는가? 그 사람이 겸손한 삶을 사는가? 또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이런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런 삶을 사는가? 교만해져 가지고 난리를 치는가? 시기 분쟁하는가? 또 의심 하는가? 이런 것을 볼 때에 그사람이 하는 영적 체험이 어떻다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열매로 분별하라. 분명히 주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분별해서 절대 속으면 안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영적체험을 하는 사람이 간증도 하고 뭐 집회도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이상하게 나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빚것이 아니라 마귀를 본것입니다. 뭐 주님 아니면 마귀죠. 둘중의 하나입니다. 주님의 영은 사람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성경말씀 이게 주님의 영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른 형제들과 말씀을 가지고 나눌때 그리고 또 어린 성도들을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는대로 그들을 잘 양육도 하고 중보도 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그래 계속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지켜 줄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평안이 옵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루에 성경을 한 40 페이지만 읽으면 환상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저도 몇년 동안을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그럴때 퍼즐처럼 Kingdom of God 이 짜악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100년 전의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주제가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인걸 깨달았다고. 어쩔 같은 깨달음이냐고. 퍼즐처럼 짜악. 그다음 제가 천년왕국 책을 번역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다 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단들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리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영적체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울고 불고 그냥 법석을 떨고요 흔들여 대고 춤을 추고요 어떤 사람은 개처럼 짖고요 깔깔깔 웃기도 하고요 하여튼 무질서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요. 그렇게 되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똑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외치는데 그 외침이 사단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성령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성령 성령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행하게 되었죠? 채널 40 보세요. 전부 성령 성령... 난리를 칩니다. 그런식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네요. 하나님 말씀에 소옥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안에 자리잡을 때

그 영이 바로 말씀이 주님의 영 아닙니까? 그래 주님의 영이 임하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소망을 보게되고 결국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다니엘은 무서움 가운데 보았지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진짜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라고. 힘이 다 빠졌고요. 자기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다 썩어졌다 그랬어요. 인간적인게 다 없어진거예요. 아름다움을 beauty 라 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은 comeliness, 아주 고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건실하다.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인간 속에 그게 있어도 그것까지도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서 썩게 되었다. 인간적인 모든것은 다 썩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인간적인 그것이 싸악 없어진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죠?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 버리게 되더라고. 저도 구원받고 다 버리게 되더라고. 세상에서 배운 것 다 버리게 되더라고. 진짜 더럽더라고요 그게. 그 아름다움이 썩게 되더라 말이죠. 그렇다고 여기 다니엘이 아퍼 드러 누운게 아닙니다. 병이 난게 아닙니다. 생명력 자체가 악화된게 아니고 인간적인 힘이 빠져 버린거죠.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거죠. 9 절 보니까 **[아직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힘만 없어진거예요. 인간적인 육체의 힘만 없어진거죠. 그런데 여전히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혼수 상태가 되면 못듣습니다. 이거(혼수상태)는 그 경지하고 다른거죠. 다니엘이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었다. 의식만은 또렷했다는 거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 절 보니까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사지가 쭈욱 뻗어 있었던 거죠. 힘이 없으니까. 손이 그를 어루만지는 순간 무릎과 손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새 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 장 보면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새 힘을 준다. New strength,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힘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새힘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힘을 받은거죠.그러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몸을 일으키게 아니라 주님이 한 손을 댔을 때 힘을 얻어 가지고 무릎과 손바닥으로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앞에선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일어나죠. 11 절에 가보니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3 장 23 절 보면 사도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또 요한복음 19 장 26 절 보면 사랑하는 제자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내니이까? 내니이까? 그러는데 요한은 누구니까? 그랬어요. 그때 주님의 품에 누워 가지고 항상 주님의 품에 누웠어요. 누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죠? 다른 사람은 내니이까 그러는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예요 오늘날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니까. 구원받고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롬 8:28)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6,18 절 말씀. 그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었죠. 처음엔 힘드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감사하게 되었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당부했죠. 네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보고 뭐라 그랬죠? 어머니! 그러지 않았어요.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마리아보고 어머니 그러지 않았어요. 여인이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이 잉태되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격화한 거죠.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로마교회의 삼위일체가 다릅니다. 로마교회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높이 올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유럽에 가면 로마교회 뒤에 가면 십자가에 앞에는 예수님이 못박혀 있고 뒤에는 마리아가 못박혀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직접 봤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커톨릭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하는데 그걸 다 찍어 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마리아가 못박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걸 모르고 있죠 감춰 봤으니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데 거기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아주 높이 놓은 거죠. 결국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그 육신적인 어머니 아십니까? 물론 여인이라고 그랬지만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맡겼다는 사실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나?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왔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갔었지만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왔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은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다니엘서 10 장 11 절에서는 다니엘을 일컬어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요한계시록 1 장에 주님이 나타난 걸 요한이 보고 요한도 그냥 엎드려졌죠? 결국 똑같은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명성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옛날에 바울이 한창 전도할 때 막 기적들을 행할때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나았고 악령들이 떠나고 그랬죠? 그럴 때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스게바의 일곱 아들이 흉내냈죠? 내가 바울이 아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 악령들린 사람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막올라 타가지고 짓누르고 그러니까 옷을 다 벗겼죠? 그러니까 벌거숭이로 다 도망갔잖아요. 일곱 아들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희는 누구냐? 다시말해서 바울의 이름이 지옥까지 명성이 알려졌다 그말이에요. 마귀도 안다 얘기에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마귀가 압니다. 여러분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 장에 가보면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다.]** 마리아도 이미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브리엘을 보낸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알았기 때문에 보낸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옘. 하늘과 땅을 두루 다니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내 종 옘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세상에서 그와같은 사람은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옘의 명성도 하늘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사탄 역시 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옘을 봤지요. 그런데 당신이 다 축복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에까지 다 알려진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누구에게 알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알려 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도 알려 집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보복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은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하게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그 얘기를 듣던 어떤 평신도가 목사님 아들을 유괴해 가면 목사님 생각은 어떻겠어요? 누가 내 아들을 유괴합니까? 막 화가 난거야. 거 보시라고요. 마귀의 자식을 뺏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의 자식을 빼오니까 마귀는 우리 자식을 뺏어 갈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처절하게 뺏어

갈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많이 하니깐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어요. 별일이 다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을 하신다. 선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주님의 손길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을 당할때 감당하게 해주시고, 왜 감당하게 해주시죠? 핍박을 받아야만 상을 주시잖아요? 상을 주실려고 잠깐 하락하신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회복하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절대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뺏어 오는것. 영어로 winning soul 이라고 해요. 혼들을 구원해야 하니깐 혼들을 뺏어 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예베소의 성도들에게 **[종말로 종말로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데에 있는 악에게 대항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힘이 들죠.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명성이 하늘과 지옥 양쪽에 유명해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유명한 자 같지 않으나 유명하고]**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으나 지옥과 하늘에는 내가 유명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명예, 돈써가면서 총회장 될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름 내지 않습니다. 우스운 얘기죠. 오히려 숨어 다녀야 돼. 숨어 다니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땅에서 받지 않아야만 하늘에서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들을 하는데 행동들을 안하니깐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의 말을 듣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성경, 창세기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때까지 모든 7 천 년동안의, 영원세계에 들어가기 전 7 천년 동안에 이루실 일들을 이미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 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부분적으로만 아니 이것이 바로 문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서 이 말씀들이 우리안에 환상으로 다 비쳐질 때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때에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멋진 환상을 보고 이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썩어질 육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꽃같이 시들 영광 바라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름들이 하늘과 지옥에 알려져서 마귀들이 벌벌 떠는 이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